



체육영재선발대회가 8월 22일부터 5일 간 암실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체육영재선발대회. (사진=전북체육회 제공)

체육영재선발대회 내달 '팡파르'

내달 22일부터 5일간 암실서... 전북체육회, 11일까지 참가자 모집

체육꿈나무 발굴을 위한 선발대회가 다음달 암실군에서 펼쳐진다. 18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체육영재선발대회가 8월 22일부터 5일 간 진행된다. 올해 2회째다. 이 대회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해 전북 체육을 이끌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참가자격은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기초체력이 우수한 학생

이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운동선수로 등록 돼 있거나 전년도 대회에서 체육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우승자에게는 각 학년별로 체육장학금이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1일까지 거주지 시·군체육회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영재복지과(063-250-832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고봉수 신임 전북태권도협회장 당선

제23대 전라북도태권도 협회장에 고봉수 상임부회장이 당선됐다. 18일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마감된 회장보궐선거 등록 마감 결과 고봉수 상임부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병하 전임회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서며 공석이 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고봉수 신임회장은 "저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책무가 무언인지 깊은 성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통과 단합이다"며 "전라북도협회는 14개 시도협회와 지도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북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과제와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전국씨름대회 대학부 경장급 우승

전주대 씨름부 한지민

전주대학교 씨름부 한지민(생활체육 4년) 선수가 제52회 회장기 전국장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 경장급(75kg 이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지민 선수는 최근 충남 보령시 대전초등학교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씨름대회 대학부 경장급 결승에서 이동혁(인하대) 학생 선수를 1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단판승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한 선수는 32강전에서 박준혁(단국대), 16강전에서 강병찬(동아대), 8강전에서 최우진(용인대) 학생 선수 등을 각각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어 한 선수는 준결승전에서도 노민수(울산대) 학생 선수를 1대 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이동혁 학생 선수를 들어 뒤집기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임종길 감독은 "한지민 학생 선수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며 "한지민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학생 선수들도 우승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체계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서 전국 소프트테니스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군·구, 클럽 대항전 진행

소프트테니스의 메카 순창군에서 제43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순창군 후원하에 이번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제43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와 통합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하게 됐다.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시·군·구 및 클럽 대항전 및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단 등 400명이 순창을 방문했다. 순창군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협력하여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회 참여자 전원 신속한검진 결과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순창군에서는 스포츠대회 방문객이 불편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실내구장 전구 교체, 코트 정비, 경기장 내부 도색 등을 추진해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을 철저히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정상급 당구선수 '총출동'

문체부장관기 전국당구대회 20~24일 정읍서 개최

국내 최정상급 당구선수들과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당구대회 겸 2022 전국당구선수권대회'가 오는 20일 정읍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와 정읍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는 전문선수부(20일~23일)와 동호인부(23일~24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캐롬, 포켓, 스누커, 잉글리시빌리어드 총 4개 종목의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서창훈 선수와 김행직, 이신영 선수 등 국내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여해 개인의 성장과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대회 주요 경기는 대한당구연맹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기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참례된 스포츠 영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권 증진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재원이 등이 지원 가능하며, 대상별 주제에 맞는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적절성과 우수사례의 창의성' 등이다. 자세한 공모방법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성료... 한국·태국 AG 메달리스트 경쟁 치열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조직위원회 임원,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15~17일 3일간 스폰서 프로암 3경기와 본대회 등 총 6경기를 진행, 합산 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는 중풍에서 진행, 선수들이 요트경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바람과 바람과 조류를 이용한 코스선택이 승부를 갈랐다.

특히 SPORTS 종목에서는 태국과 한국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ORC종목에서는 핏택엔젤스, OPEN종목에서는 에이치큐이, SPORTS 소형7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태국 선수단은 2019년 전북요트협회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에서의 우정을 다졌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3주년

최소한의 건축양식, 검소와 청빈의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무성서원!

최저원의 생사당으로 시작해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학문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천년의 보물!

나라가 위급할 땐 붓 대신 칼, 서원 중 유일하게 항일의병이 일어난 선비의 정신이 살아 있는 그 곳..., 무성서원

모두에게 열려있는 천년의 마당, 무성서원은 가치를 알리고 보존해야 할 정음의 천년 자산입니다.

정음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9. 7. 6. 아제르바이잔 바쿠)

시민 중심, 으뜸 정음